



3면

박지원 "더 배우고 더 만나 의견 들겠다"

전주매일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음 3월 25일) 제39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이 지난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 의지를 천명했다.

“원팀으로 전북의 봄 열겠다”

민주 전북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합동 출정식

당 중심 지방정부 구축 의지... 지선 승리 공동 협력 천명 향후 선거대책위원회 조속히 구성 선거운동 본격 돌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원팀'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의 새로운 봄을 열겠다"며 민주당 중심의 지방정부 구축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 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최정호 익산시장 후보,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최훈식 장수군수 후보, 전춘섭 진안군수 후보, 함득수 임실군수 후보,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권이현 부안군수 후보 등이 참석했다. 정읍시장 후보인 이희수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일정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사회자가 밝혔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전북이 오랜 소외와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자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함께 선 지리인 만큼 협력과 통합의

가치로 하나 된 민주당 원팀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전북은 지역경제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 위기,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다양한 경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도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두가 함께 뛰겠다"며 "광역과 기초가 따로 움직이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 된 시스템으로 전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 후보는 "전북의 시대가 눈앞에 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방정부가 함께 전북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진 정당이며, 각종 경선을 거쳐 검증된 후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맞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논란을 언급하며 "전북은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인 모욕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민과 출향 인사들이 함께 묻혀 윤석열 정부에 맞섰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전북과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은 정치적 르네상스를 맞았고, 이제 경제적 기회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는 "3%에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했지만 군산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저를 후보로 만들었다"며 "기득관에 맞지 않은 후보라는 점과 시민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지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와 새만금 투자 문제를 중앙정부 및 민주당과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정호 익산시장 후보는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이 됐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유능함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익산 발전뿐 아니라 전북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건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는 "전북과 남원 모두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지방재정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는 "그동안은 자신을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당과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뛰겠다"며 "김제가 땀땀 묻혀 전북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행복지수와 경제지수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2면에 계속

/이만호기자

올 전주국제영화제 여정 마무리

지난 7일 현재 좌석 점유율 82.1%로 작년보다 0.5%p 증가
폐막작 '남태령', 12·3 내란 후 남민-경찰 대치 현장 담아내

'우리는 늘 선을 넘지(Beyond The Frame)'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8일 폐막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된 폐막식을 끝으로 영화제의 막을 내렸다.

영화제는 5개 극장 속 21개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맞았으며 54개국의 286편의 작품이 준비됐다.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맞이한 54개국의 286편의 작품이 준비됐다. 영화제는 5개 극장 속 21개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했으며 54개국의 286편의 작품이 준비됐다.

영화제는 5개 극장 속 21개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했으며 54개국의 286편의 작품이 준비됐다. 영화제는 5개 극장 속 21개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했으며 54개국의 286편의 작품이 준비됐다.

영화제의 큰 축인 경쟁과 심사를 통해 올라온 경쟁 부문 작품은 물론, 프로그램이 준비한 다양한 색선택 작품도 눈에 띄었다.

지난 1월 별세한 고 안성기 배우를 조명하는 특별전 '조금 낮은 안성기를 만나다, 1960~70년대 뉴욕의 혁신적인 영화 지평을 연 언더그라운드 씬의 주요 작품을 볼 수 있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 더 매버릭스' 특별전 등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게스트 역시 다채로웠다.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감독 변영주씨가 전주를 찾아 관객들과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거장 감독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마스터클래스는 영화제와 인연이 있는 차이밍량 감독이 다시 한 번 전주를 찾았기도 했다.

축제는 이름에 걸맞은 부대행사도 많은 시민들이 즐겼다. 유니버설 픽처스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 원작 영화인 '슈퍼 마리오 갤럭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야외 상영·포토존·팝업 스토어를 통해 어린이들의 눈길도 사로잡았다. 이제는 대표 행사로 자리잡은 '골목상영' 프로그램도 과거보다 수용 인원을 늘리면서 최대 500여명이 야외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화제의 폐막작은 김현지 감독 작품인 '남태령'이다. 남태령은 지난 2024년 12월 21일, 12·3 내란 사태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로 결성된 전북농부쟁단과 경찰 간의 대치 현장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김재훈기자

준공·착공·설계 맞물린 선순환... 전북 도로행정 '속도전'

성수-진안 6월 개통... 설천-무풍 착공, 노을대교 설계 본격
순창-구림·부전-칠보 하반기 착공 등 국지도 사업 본격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을 준공·착공·설계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전북 전역 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각 사업이 맞물려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단순한 공정 진척을 넘어 전북 교통지도의 전면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도30호선 성수~진안 구간이 오는 6월 개통된다. 협소한 도로 구조와 선형 불량으로 오랫동안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이 구간은 개통과 함께 상습 정체 해소, 교통사고 위험 감소, 지역 간 이동성 향상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가져올 전망이다. 무주 설천~무풍 구간은 5월 시공사 선정과 마치고 본격 착

공에 들어간다. 서해안 핵심 인프라인 노을대교(국도77호)는 지난 4월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국도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을 잇는 이 사업은 완공 시 기존 70분이 걸리던 이동시간을 10분대로 단축해, 전북 서해안 경제·관광 인프라를 완성하는 핵심 축이다.

설계를 마친 사업들도 공사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고창 상하~해리 부안 운호~석포 구간은 지난 9월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발주에 들어가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지도 분야에서는 순창~구림(국지55호), 정읍 부전~칠보(국지49호) 구간이 설계 완료 후 발주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설계 단계에 머물렀던 국지도 사업이 실제 공사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맞은 셈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배경에는 행정 절차의 선제적 병행 추진이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완료, 설계도서 이관 등 후속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도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계약 심사, 일상 감사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설계에서 착공으로 이어지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예산 협의나 인허가 지연 등 고질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북에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국도 16개 사업(188.2km, 약 2조 4,700억 원)과 국지도 7개 사업(429km, 약 5,300억 원)으로 전북 전역을 잇는 국가간 선도로망이 동시에 조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북자치도·시군·지역 국회의원 협력을 바탕으로 각 사업 단계별 공백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만호기자

2026 완주 대둔산 아웃도어 페스티벌

완주 대둔산 잔디광장 일원

DAEDUNSAN

2026. 6. 13. 토 - 6. 14. 일

절벽 풍경

“오늘은 능선 아래서 잔다”

완주군 WANJU-GUN